

2025년 교회재정세미나

교회 재정 공·적·책·임·의·길

“2026년 건강한 재정운영을 위한 7원칙”

| 최호윤 회계사 (사)토브협회 이사장,
회계법인 더함 대표

| 신동식 목사 (사)토브협회 이사
빛과소금교회 담임
기윤실 공동대표
문화와설교연구원 대표

2025. 11. 6. 열매나눔재단 나눔홀



사단법인 토브협회를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2005년, 한국교회 구조 회복의 핵심인 교회재정을,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 교회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해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시작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Mission과 재정(Fund)가 만나 가치를 키워가는 교회와 세상, 그 연결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 역량을 키우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고유한 사명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7일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25년 7월 9일, 법인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원의 근본적인 주인은 삼위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에 교회의 현금과 재산을 보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인이신 삼위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도록 운영하고 하나님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 투명성, 효율성, 성장, 신뢰의 가치 위에서 한국교회가 신뢰의 첫걸음인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을 돋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운영 교육과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 편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자발적 결산서 공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사단법인 토브협회 이사장, 회계법인 더함)

홈페이지 tov.or.kr

Email tov.npo@gmail.com

연락처 02-6951-1391

fax 0505-231-2481

후원계좌 국민 | 006001-04-353709 | 사단법인 토브협회



순서

■ 발제1

최호윤 회계사 | (사)토브협회 이사장, 회계법인 더함
교회재정, 공적책임의 길-건강한 재정운영을 위한 7원칙

■ 발제2

신동식 목사 | (사)토브협회 이사, 빛과소금교회 담임
건강한 재정운영의 길을 걷는 교회

■ 질의응답

건강한 재정운영을 위한 7원칙

- 최호윤 회계사 (사단법인 토브협회 이사장, 회계법인 더함)

I 건강한 재정관리

교회재정관리 컨설팅과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재정관리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는 대답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먼저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이든 한 달란트이든 상관없이 충성되게 관리할 책임을 모두가 지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다고 하여 재정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례로 월급이 1,000만원인 가장과 생활비를 겨우 충족하는 선인 월급 300만원을 받는 가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사람 중 생활비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더 규모 있게 관리해야 할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적게 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월급이 많은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수입으로 잉여자금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계획이나 고민 없이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유활동을 누릴 수 있으나(그렇다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님), 생활비를 겨우 충족하는 수입을 가진 가장의 경우 하루하루 생활에 빠듯한 수입으로 인한 잉여자금 부족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자기계발에 투자하거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급이 많을수록 아니라 적을수록 계획이 더 필요하듯이 교회 재정도 “규모”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으로서 관리할 책임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 몸을 관리할 책임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우리의 청지기적 권리와 책임을 멸시하는 것이다.

재정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교회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현금을 교회 구성원의 손을 통하여 사용하신다.

현금을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드려진 현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이 제사장에 의해 임의로 처분되었고, 따라서 봉헌자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제가 없어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현금이 목회자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현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선한 청지기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할 일들은 많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재정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므로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에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게 된다. 즉, 재정을 사용한 결과는 교회가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된다. 따라서 교회의 목회방향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용의 우선순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교회가 계속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지역사회에 짐이 되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교회 교인들에게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살전4:11~12)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넷째, 교회 스스로 교회에 맡겨진 재정을 관리하는 모델이 되어야만 성도들 개인 재정생활에 대한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교회가 건강한 재정운용에 대한 원칙과 실제 적용사례를 보일 때 이를 보고 성도들도 맘몬의 영향을 받는 자본주의에서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배울 수 있다.

다섯째, 재정운용에 대한 결산과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란 점이다. 이는 재정운용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산할 때 각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교회가 더욱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방향성

교회의 재정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 되어야 한다.

1. 목적적합성: 교회 재정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기능에 사용되었는가?

가. 위탁자의 의도

교회가 재정을 a)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는가? b)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c) 교회 공동체인 구성원들이 재정관리의 주체로서 청지기 책임을 잘 감당하였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관점에서 교회 재정은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가 집행하는 재정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교회의 기능을 잘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결과를 집계하는 계정과목 체계들이 교회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세분화되고, 사용한 계정과목도 해당 계정과목의 성격에 일치하는지 출 내역들을 기록해야만 한다.

나. 소통 도구로서의 회계

재정을 집계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표현하며, 회계(會計)란 단어를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모임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회(會)'와 계산한다 또는 집계한다는 의미의 '계(計)'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회계는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일련의 재정적 사건을 공통적 속성(계정과목)으로 집계하여 총괄적 의미로 파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집계한 결과는 수지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또는 재무상태표 등 다양한 보고서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작성된 결산서는 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난다.

회계라는 용어를 '일정한 기준으로 집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집계하는 과정

은 단순한 기술적 행동에 불과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모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특정한 조직(교회)의 가치관을 표시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교회 회계를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교회 재정관리의 방향성과 교회가 결산서류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만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

결산서의 계정과목을 드려진 현금의 용도 및 교회의 비전인 현금 사용기준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산서 정보는 일반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한다.

다. 공공성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후 구약시대 세상의 공동체는 ‘신앙공동체’와 ‘일반공동체’로 구분되며 신앙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에 의해 일반 공동체인 이방 민족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했었다. 이후 신약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인 일반 세상/사회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나라 백성 공동체’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사회공동체’에 각각 속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나라의 모습을 시현하고, 일반 사회공동체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음의 공공성을 담당한다. 우리가 드린 현금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현금을 ‘드리는 과정’과 드려진 현금을 교회가 ‘사용하는 과정’인 재정운영과정에서 또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회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나라 백성들간의 사랑이 구현되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임으로 일반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회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육신의 공동체적 연장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비적 구원¹⁾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공공성이 의미를 가진다.

2. 공동체성(참여): 재정은 특정 1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맡은 청지기 업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재정관리책임을 위임받은 ‘수탁자’이면서, 교회는

1)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IVP, 2002, P69

이를 다시 재정담당자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위탁자’라는 이중적 구조로 재정을 관리한다. 따라서, 교회 재정관리를 이해하려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먼저 인식 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부르면서 ‘그리스도예수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언급하고 있으며(고전1:2) ‘머리된 그리스도에 각 마디마다 연결되고 결합된 각 지체들의 모습’을 교회로 묘사하고 있다(엡4:15~16).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적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개체로서의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며, 단순히 모이는 단체 차원을 넘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교회재정관리의 구조는 구성원인 개체로서의 교인들이 개체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공동체에 재정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기에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는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적 관리의사 결정체이어야 한다.

이 땅에서 교회 재정사용의 결정 주체는 ‘교회’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공동체적 의사결정과정’이 확보되어야만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몇몇 특정한 사람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 사용 용도와 규모를 결정한다면 재정사용의 공적 구조를 확보할 수가 없다. 오늘날의 교회가 대형화 되면서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로 공동체적 논의과정을 포기한다면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은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린다. 논의과정에 훨씬 더 많은 토론과 기다림의 시간을 부여하거나 교회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법 등을 고민하면서 공동체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고민하는 과정이 현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재정운영에 참여할 때 교회의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고, 현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은 교회가 앞으로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예산을 승인하는 단계와 현금사용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금관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알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교인들은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승인된 예산은 교회의 방향성이자 곧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의 방향성이 된다. 또한, 사용한 결과를 보고 받고 승인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

에 대하여 교인들이 같이 감사할 수 있다.

3. 책무성

업무를 위임받은 청지기(수탁자)는 위임자 입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성경은 주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마25:21,23 고전 4:2, 마24:45).

청지기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택하신 의도를 분별하는 것은 교회가 재정관리에 청지기로서 가져야할 관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 하셨고(사49:6),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선교적 소명은 일반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하게한다.

4. 신뢰성: 투명한 공유와 공시

어떤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 있으며, 기업의 결산서를 보면 기업의 활동내역을 알 수 있다. 즉, 교회의 재정결산서를 보면 교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사역을 숫자로 표현하여 알리는 방법이 재정결산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교회가 재정관리에 있어 성경적인 기준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재정내역을 공개하면 교회구성원인 교인들에게는 재정관리의 모델이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교회가 하는 사역의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어 전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투명하다는 것이 바르게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면 드러난 과정들을 보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바른 재정관리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내가 수행한 결과는 나의 소유가 아니며, 나의 오류와 실수를 지적하면 겸허히 개선하겠다’는 청지기 관점의 관리자적 고백과 ‘본인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한다고 하여 팝박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왜 재정공개를 두려워하는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청지기의 자기방어 본능 때문인가?

재정내역을 공개하면 교인들 사이에 말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재정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교인들의 믿음이 약하다면 더더욱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교인들 모두가 교회의 방향에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재정이 공개되면, 몰랐으면 넘어갈 사안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엄중하게 질문해야 한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공격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교회가 잘못한 것인지?

바울은 연보를 관리하는 자들이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한다(고후8:20, 21). 너희 빛이 사람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말씀에 따를 때 교회는 이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재정관리에 비방거리가 없게 하고, 교회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교회의 행실이 교회안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가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III 재정관리 적용의 7원칙

1. 재정관리 지침의 규정화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려면 재정을 사용하는 용도(어디에)와 절차적인 과정(어떻게)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지침으로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침에는 a) 성경적 원리의 선언적 측면과 b) 원리가 구체적 절차로 표현되는 측면이 모두 규정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기능의 분리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기능(승인), 이를 집행하는 기능(집행), 집행결과를 기록하는 기능(기록)이 동일인에게 집중될 때 오류 또는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ㄱ) 재정 집행자, (ㄴ) 기록하는 사람(회계장부 작성자) 및 (ㄷ) 이를 감독/승인하는 자가 분리 되어야 한다. 규모가 작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최소한 집행기능과 기록기능은 반드시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며, 전담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면 2명 이상의 재정담당자를 임명하여 현금을 같이 계수한 후 1명은 현금과 예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를 기록하도록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해상충의 회피

이해상충이란, 책임을 맡은 사람이 교회의 이익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 또는 자기와 연결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즉, 교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당사자가 이러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런 역할에서 스스로를 빠지도록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상충은 반드시 “부정한 의도”가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가족·친척, 친한 지인 또는 자신과 연결된 이해관계자에게 예산을 배정하거나 거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는 “사적 이익을 위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심의 여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상충 회피의 핵심은 실제로 공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정의하고, 해당 직분자가 그 의사결정에서 물러나는 절차를 문서화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4. 예산 수립 및 승인

목회계획에 따라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되

며, 현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 과부족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산 설정(또는 승인)시 특정인 또는 특정부서가 많은 예산배정을 요구하거나 특정행사를 반대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특정인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교회공동체내에서 하나님나라와 교회의 비전에 비추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산조정 절차는 교회의 방향에 대한 의견조정과 통합의 과정이 되며 구성원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점에서, 재정을 통하여 교회공동체가 한 몸으로 견고히 세워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설정한 예산이 교회의 비전 및 목회방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교회공동체 구성원 교인 각자가 참여하여 예산을 승인함으로 승인절차가 공동체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헌신에 대한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 예산에 따른 지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비하여 주신다는 측면이지 관리직무를 맡은 청지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다. 청지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관리를 맡은 청지기인 교회는 지혜롭게 고민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고민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맡겨주신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계획(예산)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배분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세운 배분기준은 교회의 신앙고백이 된다. 즉, 교회가 생각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예산이라는 숫자로 표현된다.

6. 문서화

현금이 사용된 모든 내역을 증빙첨부하여 문서로 정리하여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서로 보관하면 누구든지 필요할 때 그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지나간 과거 기록은 다음에 참고가 될 수 있고, 내가 사용한 내역이 문서로 보관되어 5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혹자는 믿음 좋은 담당자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제도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인간들이 재물로 하나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신 것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체 제하에서 현금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위험성을 분명히 직시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현금관리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먹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같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재정담당자들에게 생선을 던져주고서는 시험을 이길 것을 요구하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다

7 주기적인 검토와 감사

감사는 사후에 오류를 파악하여 지적하는 기능도 있지만 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교정하는 기능에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회계기간 종료한 후 회계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사항을 미리미리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현금 사용과정에 대하여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재정 관리자를 별도로 세워서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재정관리자가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감사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는 반드시 재정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형교회의 경우 외부감사가 바람직하나 중소형 교회의 경우 교단내 교회별로 교차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IV. 나가는 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수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으며, 고민과 연구가 있다.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얻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재테크라는 용어도 생겼고, 관리기법이 기술(tech)의 수준까지 발전했다. 물신(Mammon)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교회가 가지는 관심과 노력이 일반적인 재테크를 고민하는 정도보다 적은 것이 아닌가 교회가 심각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교회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서 현금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보다 맘몬을 더 중요하게 섬기는 무서운 잘못을 범할까 두렵다.

재정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 도구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사탄의 비방거리가 되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교회 회계’, ‘교회 재정’ 관리는 기술적인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에 앞서 교회가 청지기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방향성에 대해 인식하고, 청지기적 책임을 잘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이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은 교인들의 재정관리 모델이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공동체가 교회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교회가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재정, 신뢰받는 교회

- 신동식 목사 (사단법인 토브협회 이사, 빛과소금교회 담임)

1. 들어가는 말

- 1)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구동성으로 교회 재정에 대한 불신을 말합니다.
- 2) 소 잊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 3) 재정의 문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없습니다.

2. 내부의 적

- 1) 한국교회 내부에 있는 적들 가운데 하나로 재정의 불투명함을 말하는 것은 재정이 사적인 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계획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3) 교회가 당회에 재정을 위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라는 의미이지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 4) 재정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3. 재정보고가 두려운 이유

- 1) 개척 당시에 교회 재정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고 그 실천 방식에 관하여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 2) "첫째, 성도들이 부담을 느낀다. 둘째, 자유로운 재정집행이 어렵다. 셋째,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교회의 재정을 매월 공개하는 것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더구나 작은 규모의 교회는 사실 재정의 내용이 간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을 때 하지 않으면 끝 때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투명성과 정직성

- 1) 교회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원칙과 교회가 분란이 혹 일어난다 하여도 임의적으로 재정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매월 첫 주에 재정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였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인 나눔셈²⁾을 교회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3) 회계 감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 4)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목회자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장기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파트 사역자들까지 건강보험료와 함께 국민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퇴 연금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장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사역이 30~40년이라고 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 5) 재정 원칙에 따라 구제와 선교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6) 신뢰받는 교회, 정직한 교회가 되는 길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교회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은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 주는 작은 시작입니다.

5. 재정의 투명성은 교회의 건강성의 지표

- 1) 한국 교회의 아픔 가운데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재정 문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 2) 교회의 재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재정에 대한 정직함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직한 재정 사

2) 나눔셈은 최호운 회계사가 세운 단체다. 나눔셈은 비영리단체와 교회들이 재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실무자 중심의 회계프로그램이다.

용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3) 재정의 공개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재정의 투명성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6. 건강한 교회 재정 플랜 세우기

1) 재정 예산은 철저하게 집사가 하고 장로는 결산과 회계 감사와 예산 제안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재정 사용에 있어서 4.3.3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행정 40%, 교육 30%, 선교, 구제 30%이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지만 최대한 우선 결정을 하였습니다.

3) 50만원 이하는 선 지출 후 보고, 50만원 이상은 선 보고후 지출로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재정 규모에 따라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 상황에 대하여 매월 재정 보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매월 보고 되는 재정보고서는 교회 게시판에 일년 동안 비치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혹 재정 보고 주일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확인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6) 매년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통하여 일년 동안의 재정 지출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교회 앞에 발표합니다.

7) 교회가 복식부기를 통하여 재정관리를 하면서 생겨난 습관은 영수증 관리의 철저함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8) 절기 헌금은 우선적으로 구제헌금과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정원칙의 균형을 맞춥니다.

7. 나가는 말

1) 재정 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2) 원칙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제도적인 보완책과 또한 재정 운영에 관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이란 제정운영에 관한 규칙이 교회 정관과 시스템이 함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3) 재정의 투명성은 목사와 성도뿐 아니라 교회 밖을 향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우리는 물질 앞에 자신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상한 것들이 바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교회가 바르게 서는 길입니다.



